



위재권 편저

음악 이 책의 특징

- 1 · 교과 역량 + 교과서 연계
- 2 ·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 + 교과서 연계
- 3 · 악기 주법과 관련된 큐알코드 제시
- 4 · 검정 지도서 각론 제재곡 완벽 분석 및 큐알코드 제시

미술 이 책의 특징

- 1 · 내용체계표 내용 요소와 교과서 연계
- 2 · 미술 양식과 작가 / 관련작품 설명 큐알 코드제시
- 3 · 미술 실기와 관련된 큐알코드 제시
- 4 · 검정 지도서 각론 완벽 분석

초등 · 초등특수 교사임용시험 대비

각론편 [2015개정]

음악 · 미술
지도서
각론 구조화

지도서
각론 **보**개기

미술 3 - 6 각론 뽐내기

1. 내용체계표 내용 요소와 교과서 연계
2. 미술 양식과 작가 / 관련작품 설명 큐알 코드제시
3. 미술 실기와 관련된 큐알코드 제시
4. 검정 지도서 각론 완벽 분석

[서양미술 — 근대미술]

① 신고전주의

18세기 중엽에 고전적인 예술의 형식과 주제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시작되었고, 내용적으로는 계몽주의 사상을, 형식적으로는 고전적인 평온함을 추구하였다. 이지적이고 정적인 것이 특징이다.(앵그르, 다비드 등)

② 낭만주의

안정보다는 정열을 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양식이다. 감정적이고 강렬한 색채, 동적인 화면 구성, 이국적인 소재, 낭만적인 분위기로 인간의 감정을 격정적이며 정열적으로 표현하였다.(제리코, 들라크루아 등)

③ 자연주의

전원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여 밝고 신선한 색채로 농민의 생활과 목가적인 자연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 프랑스의 바르비종파가 유명하다.(밀레, 코로, 컨스터블 등)



[이삭줍는 여인 : 프랑스 화가 밀레(1814~75)의 작품]

전원생활을 주요소재로 삼았던 바르비종파의 대표적 화가인 밀레의 작품으로 원경의 평화로운 배경을 뒤로 하며 추수를 끝내고 남은 이삭을 줍는 세 아낙네의 고된 노동이 서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안정감 있는 구도, 가라앉은 색조가 차분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④ 사실주의

현실 그 자체를 직시하여, 일상적이고 평범한 주제를 찾아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현실과 사실을 사진처럼 실제풍경을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려 하였다. (쿠르베, 도미에 등)



[돌 깨는 사람들 : 프랑스의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

1849년에 그린 <돌 깨는 사람들>은 황폐한 시골을 배경으로 비천한 노동을 하고 있는 두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그림은 귀족적인 인물이 아닌 초라한 농민들의 삶과 정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귀스타브 쿠르베는 평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를 작품 속에 담고자 하였다. 쿠르베는 농민들을 미화하지 않고 대담하게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여 미술계에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⑤ 인상주의

물체의 고유색을 부정하고 태양 광선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와 빛에 의한 순간적인 인상을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에 따라 달라지는 색으로 포착하여 표현하였고, 현대 미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



모네 -



마네 -



[건초더미, 눈의 효과, 아침 : 클로드 모네(1840~1926)]

모네는 인상주의적 표현의 개척자로, 그의 작품 '해돋이 인상'이 전시회에 출품되면서 '인상파'라는 말이 시작되었다. 모네는 같은 장소를 계절과 시간에 따라 연작으로 나타내었는데, '루앙대성당', '건초더미 연작' 등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다.



[포플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 : 모네]

모네는 인상파 화가로, 햇빛을 받은 자연의 표정을 따라 밝은 색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팔레트 위에서 물감을 혼색하지 않는 인상파 기법의 한 전형을 개척한 사람이다. 인상파란 이름도 그의 작품 '인상-일출'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작품 또한 포플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를 살려 그린 그림으로 일차형 구도이다. 멀리 나지막한 야산을 배치하고, 그 앞에는 곧은 포플러 나무를, 가까운 곳에서 세 그루의 포플러 나무를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양산을 쓰고 있는 모습을 배치하였다. 흔히 볼 수 있는 들판을 소재로 부서지는 햇살을 받아 반사하는 들판의 풀이나 나무 등의 색을 팔레트에서 혼합하지 않고, 원색을 그대로 캔버스에 칠하여 한순간에 보이는 인상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즉, 햇빛이 시시각각 변하는 들판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그린 것이다.

[모네, 루앙 성당 연작, 1894년 작]



6 신인상주의

인상주의 이론을 과학적, 색채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색채 분할에 의한 시각적 혼합 효과를 주는 점묘법을 활용하였다. (쇠라, 시냐크 등)



【라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 조르주 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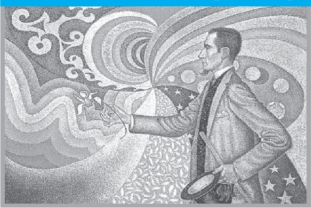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작은 색점이 보여요. 이 그림은 색점만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멀리 떨어져 보면 수많은 점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요. 이러한 표현 방법을 점묘법이라고 해요.

빛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 팔레트에서 혼색하지 않고, 직접 화면에 색점을 찍어 표현하는 점묘법을 이용하여 채도를 높였으며, 시각적 혼합으로 밝고 생생한 화면을 표현하였다.

쇠라가 속한 이러한 신인상주의의 유파는 색채를 분할하여 원색의 색점을 찍어 표현하는 병치 혼합 기법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유파의 화가로 쇠라, 시냐크 등이 있다.

시냐크

1890년 펠릭스 페네옹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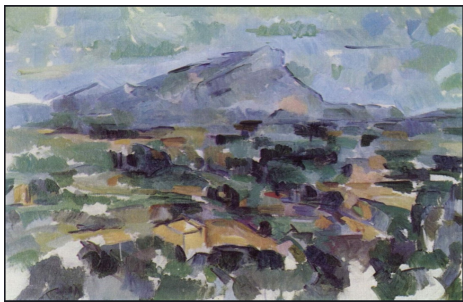


(유채/73.9x93.1cm/1890년 작) 시냐크(Signac, Paul/1863~1935/프랑스) 이 그림은, 쇠라와 시냐크의 미술을 찬양했던 비평가 펠릭스 페네옹을 표현한 작품으로, 색채와 곡선의 밝은 만화경을 배경으로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다. 색상의 변화, 명도의 변화가 다양하여, 마치 색조와 색상이 울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절묘한 색의 조합과 다양한 색채의 활용이 매우 이색적이며 점묘법으로 표현하여 보는 재미를 더해 준다.

7 후기 인상주의

인상주의의 색과 신인상주의의 지나친 과학성의 반발로 대상의 시각적인 재현에 벗어나 각각의 개성, 주관, 감정 등을 강조하였다.

① 세잔 : 대상을 기하형으로 단순화하여 다면적 배치를 통한 화면의 견고한 구성을 추가하였다.



【생트 빅투아르 산 : 폴 세잔 캔버스 유채】

말년에 제작한 생트 빅투아르를 산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잘 된 작품이다. 산의 형태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여 움직이려는 듯한 느낌을 주며, 수평적 요소가 강한 화면의 상부에 비해서 하부는 땅과 집, 수목을 세로로 붓 터치로 나타내고 있다. '농촌의 만추'와 비교했을 때, 넓고 시원한 붓 터치로 면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바구니가 있는 정물 : 폴 세잔 캔버스의 유채】

세잔은 1904년 상징주의자인 에밀 베르나르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그의 미학 선언으로 간주되곤 하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 "나는 자연에서 원통, 구, 원추를 봅니다. 적절히 배치된 사물의 면과 선은 구심점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 말은 그의 회화 세계를 잘 설명해준다. 세잔의 후기 작품인 『바구니가 있는 정물』에서도 위에서 말한 원칙들이 구현되고 있다. 언뜻 보아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사물이 중앙에 모여 있다. 마치 이제 막 무대에 등장한 인물들처럼 이 사물들은 언제라도 다시 흩어질 것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주전자와 과일 바구니는 각각 다른 높이의 시선에서 그려진 채 한 화면 속에서 우연히 만난 듯하다.

② 고갱 : 인상주의 양식을 토대로 티히티 섬의 원시림에 묻혀 강렬한 색채와 인간을 통한 근원적인 상징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구상을 시도하였다.



【타히티의 여인들 : 폴 고갱 캔버스에 유채】

타히티의 이국적이고 야생의 원시적인 매력은 그의 예술혼을 불태웠으며, 특히 타히티의 여인들은 고갱의 새로운 뮤즈가 되어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의 신비스런 조화라는 화가의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시켜 주었다. 《타히티 여인들》 혹은 《해변에서》로 알려진 이 작품은 해변가에 앉아 있는 두 여인의 나른한 자태와 우수에 찬 시선을 그리고 있다.

고갱은 "색채야말로 생명이다"라고 말하며 회화에서 색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색채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믿어 원근법이나 명암법의 사용을 거부하였는데 이 작품에서도 평평하게 칠해진 색면이 평면성을 강조하면서 두 명의 타히티 여인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의 단순화된 인물형과 울동적인 패턴의 강한 윤곽선, 상징적인 요소는 원시미술과 일본 미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풍부한 색채는 비유법적인 생기발랄함을 추구하는 고갱의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

- ③ **고흐** :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을 주제로 거친 질감과 울동적인 화면등으로 작가의 심리를 그대로 투사하였다.(임파스토 기법 : 유화 물감을 두껍게 칠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르는 말로, 질감 효과와 생동감을 준다.)



[별이 빛나는 밤 : 빈센트 반 고흐 캔버스에 유채]

그는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면서 "왜 하늘의 빛나는 점들에는 프랑스 지도의 검은 점처럼 닿을 수 없을까?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려면 기차를 타듯이, 우리는 별에 다다르기 위해 죽는다."고 했다. 이 시기에 그의 필치는 더욱 두꺼워지고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으며, 꿈틀거리는 듯한 선은 별의 광채를 한층 두드러지게 한다. 이 시기의 특징인 회오리치는 듯 꿈틀거리는 필치는 강렬한 색과 결합되어 감정을 더욱 격렬하게 표현한다. 이 곡선의 화필은 굵아치는 운동감을 표현하면서, 그림 전체를 울동적인 흐름으로 통합한다.



[해바라기 : 빈센트 반 고흐 캔버스에 유채]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 반 고흐는 꽃의 섬세함을 포착하면서도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빛과 색채를 통한 감각과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는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뜨겁고 격정적인 자신의 감정을 대변하는 영혼의 꽃으로 그의 짧고 비극적인 삶과 예술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

밤의 카페 테라스



(유채/81×65.5cm/1888년 작) 반 고흐(Gogh, Vincent van/ 1853~1890/ 네덜란드)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과 함께 고흐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배경인 아를의 카페 '드 라르카사르'는 오래전부터 많은 예술가들이 토론하던 집합 장소이다.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고, 푸른색과 보라색, 녹색을 사용하여 밤을 표현하였다.

⑧ 19세기 후반의 조각

로댕(생각하는 사람, 칼레의 시민 등), 부르델(활을 쓰는 헤라클레스 등), 무니에(탄광부 등)이 유명하다.



[생각하는 사람 : 오귀스트 로댕 조각, 청동]

높이 186cm. 작품의 석고상(石膏像)은 1880년에 완성되어, 최초에는 《시인》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지옥의 문》의 문 윗 부분에서 아래의 군상(群像)을 내려다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것을 1888년에 독립된 작품으로서 크게 하여 발표, 1904년 살롱에 출품하고부터 유명해졌다. 단테의 《신곡(神曲)》을 주제로 한 《지옥의 문》의 가운데 시인을 등장시키려고 하는 로댕의 시도가 벗은 채로 바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여러 인간의 고뇌를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에 잠긴 남자의 상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전신 근육의 긴장에 의하여 격렬한 마음의 움직임을 응결시켜, 영원히 계속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강력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살롱 출품 후 파리의 판테온에 놓아두었으나(1906~1922), 그 후 로댕미술관의 정원으로 옮겨졌다. 모작품(模作品)의 하나는 로댕의 묘를 장식하였다.

[서양미술 — 현대미술]

① 야수주의

후기 인상주의의 주관적, 감성적 표현의 영향을 받아 원색 위주의 강렬한 색채, 대상의 대담한 변형과 자유로운 터치, 단순화 등으로 작가의 뚜렷한 개성을 표현하였다.(마티스, 루어, 블라맹크 등)



[달팽이 : 마티스 종이에 구아슈, 콜라주]

마티스 말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작업은 색종이 콜라주이다. 죽기 10년 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이젤에 종이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려워지자 마티스는 붓 대신에 가위를, 물감 대신에 구아슈를 칠한 색종이를 사용해 콜라주의 회화 요소로서 평면적 성격을 부활시켰다.

마티스는 '가위는 연필보다 한층 감각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색종이 그림 작업을 계속하여 《달팽이》와 같은 대작을 제작하였는데, 당초 이 작품에는 '현실에 뿌리박은 추상적 패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초록·빨강·노랑·파랑·분홍·검정 등의 색을 사용하여 달팽이의 형태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색종이의 배열이 휘도는 모양으로 움직여 나가게 하여 달팽이의 껍질을

연상하게 하고, 그 운동은 연속적이 아니라 쉬었다가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쉬는 영원한 반복을 상징하는 듯하다.

② 입체주의

여러 시점(다시점)에서 관찰한 형태를 시간성을 초월하여 한 화면에 재구성, 단순화하거나 분해하여 표현하였다.(피카소, 브라크, 레제 등)



[도라 마르의 초상 : 파블로 피카소 유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작가의 열정은 그것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없이 작품이 탄생하겠는가! 피카소도 마찬가지였다. 도라 마르는 파블로 피카소가 마리테레즈 발테르와 연인 관계일 때인 1936년 만난 사진사였다. 초현실주의 시인인 폴 엘뤼아르(1895-1952)의 소개로 피카소와 만난 도라 마르는 이내 그의 연인이 되었다. 피카소는 수많은 여인들과 연인 관계였음은 유명한 사실인데 도라 마르가 특히 유명한 까닭은 피카소가 파리의 작업실에서 그린 대표작 <게르니카>의 제작 과정을 그녀가 사진으로 담아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사진을 통해 미술사학자들은 <게르니카>의 드로잉 과정부터 완성작까지 모두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피카소는 도라 마르를 만난 1936년부터 1939년까지 그녀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 이 <도라 마르의 초상>(1937)도 그때 그린 작품 중 하나다.

이 작품은 사실적으로 얼굴을 묘사하는 대신 정면,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본 모습을 한 화면 안에 새롭게 구성하여 표현하였다.

큐비즘이라는 낱말이 처음 쓰여진 동기는 조르즈 브라크의 풍경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초 브라크는 프랑스의 남쪽 지중해 연안 지방 레스타크에서 사생을 하면서 풍경화를 그렸으며 이 풍경화를 두고 비평가는 입체적 희한함 (bizarreries cubique) 이라고 풍자하였으며, 이 낱말에서 후에 브라크의 표현 양식을 본 딴 그림들 및 화가들의 경향을 큐비즘이라 부르게 되었다.

브라크는 레스타크 지방의 풍경화를 그리면서 대상을 입체적 공간으로 나누어 여러가지 원색을 칠하여 자연을 재구성 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적인 공간 구성과 대상의 표현 양식에서 출발하여 **브라크는 점차 눈에 두드러진 입체적인 형태, 원통형, 입방형, 원추형 따위를 종래의 선이나 면을 대신한 표현 수법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브라크가 추구한 입체적 표현 양식은 자연 대상을 순수한 그림 대상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체주의 작품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물을 해체 했다 다시 조화롭게 접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래서 어떻게 화면을 아름답게 분해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했다.



[파블로 피카소 <게르니카>1937, 캔버스에 유채, 349.3x776.6cm]



모자 쓴 여인의 흉상



(리놀륨 판화/63.5×52.5cm/1962) (Picasso, Pablo/1881~1973/에스파냐) 에스파냐출신이지만 프랑스에서 다양한 화가들과 어울려 활동하면서 브라크와 함께 입체주의 양식을 창조한 화가이다. '게르니카', '아비뇰의 처녀들', '우는 여인'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황소머리



(자전거 손잡이와 안장/33.5×43.5×19cm/1943) 피카소(picasso, Pablo/1881~1973/에스파냐) 길을 가던 피카소가 우연히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고는 그 자전거에서 안장과 손잡이를 떼어서 제작하였다. 안장에다 손잡이를 붙이고 '황소 머리'라고 제목을 붙였다.

19 미디어 아트(media art)★

미디어 아트는 일반적으로 사진, 전화, 영화 등의 발명 이후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예술을 가르킵니다. 예술과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의 영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미디어 아트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인터랙티브 아트, 디지털 아트, 비디오 아트,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등을 미디어 아트라고 정의하며 넓게는 퍼포먼스나 바디 아트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인터랙티브 아트**가 기존의 예술과 다른 점은 **작가와 관객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적인 예술은 정적인 제작물로서 심리적 상호소통이 집중하는데 비해서 **인터랙티브 아트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심리적인 상호 작용 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통한 물질적인 상호작용도 일어납니다.** 기존과 다른 매체의 사용과 관객과 작품 간의 상호작용 덕분에 기성 작품에 보다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설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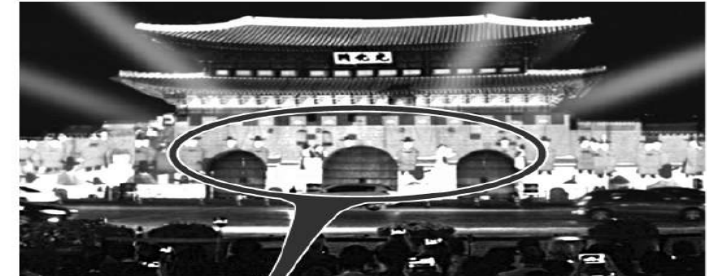
1. **미디어 퍼포먼스** -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하는 공연
2. **미디어 파사드** - 대상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건물 외벽에 빛을 쏘거나 조명을 설치하여 영상을 보여주는 것)**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에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예술 작품★
3. **미디어 아트 영상** - 디지털 기기에서 표현되는 예술 영상 작품
4. **키네틱 아트** - 움직이는 예술 작품으로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넣은 예술 작품
5. **인터랙티브 아트** - 관객의 특정 행위를 감지하여 이에 따라 작품이 반응하는 예술 작품
6. **디지털 아트** - 디지털 기기를 통한 조각, 회화, 설치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

20 미니멀 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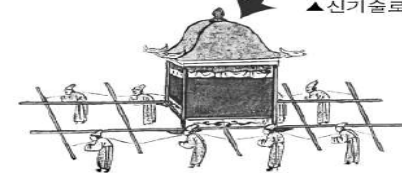
작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최소한의 조형 단위를 이용하여 극도의 단순하고 엄격한 비개성적 화면을 만들어 낸 **순수추상**의 한 분야이다.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추상 회화 및 조각의 한 경향. 최소한의 조형 수단을 사용하고 색채, 형태, 구성을 극히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15 미디어 아트 - 미디어 파사드



▲신기술로 재현된 <의규장각 의궤> 영상



▲위 영상에 활용된 <의규장각 의궤> (일부)

현대 미술 표현 방법

32쪽



마티스(Matisse, Henri/프랑스, 1869~1954) | 붉은 방 (붉은 조화)(캔버스에 유채, 180.5×221cm, 1908년 작)

마티스는 원색적인 색상과 단순한 구도로 표현했어요. 벽지와 식탁보가 붉은색을 이루며 반대색인 청록으로 풍경을 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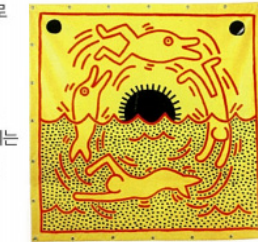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러시아-프랑스, 1866~1944) | 추상 수채(종이에 연필, 수채 물감, 50×65cm, 1913년 작)

칸딘스키는 추상 미술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는 보이는 대로 옮긴 그림이 아니라도 점, 선, 면 등으로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여 주었어요.



마그리트(Magritte, René/벨기에, 1898~1967) | 골콘다(캔버스에 유채, 80×100.3cm, 1953년 작)

마그리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계를 그리면서 새로운 느낌이 들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중절모를 쓴 신사가 비처럼 내리는 모습은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요.



해링(Haring, Keith/미국, 1958~1990) | 무제(방수포에 아크릴 물감, 183×183cm, 1983년 작)

해링은 낙서를 보고 깊이 감동하여 벽면과 지하철역 등의 벽에 분필 등으로 그렸어요. 간결한 선과 원색 그리고 유머가 넘치는 기법들은 대중의 관심을 얻게 되었어요. 낙서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힘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예요.

성취 기준 - [초등학교 5~6학년] (1) 체험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① 미술 수업 내용과 관련된 다른 교과의 내용과 방법을 수업 전에 미리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교과서]

항의 융합 프로젝트

2. 눈이 머무는 미술 세계

미술가의 삶과 작품 읽기

공부할 내용 미술가를 조사하여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집과 작품을 만든다.

✓ 미술가를 조사하여 자료집과 작품을 만들어 발표해 봅시다.

1 준비하기 조사할 미술가를 정하여 봅시다.

다양한 미술을 찾아보자.

2 계획하기 역할을 나누어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활동 계획을 세워 봅시다.

자료 조사하기 문헌과 누리집 등으로 미술가의 생애와 작품 조사하기

전시회 도록이나 책에 나온 정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나의 역할은 뭐지?

어떤 분야의 작품을 찾아보았나요?

그 분야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의 미술가는 누구인가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료 정리하기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기록 방법 구상하기

미술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통해 알게 된 내용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병풍 모양의 자료집을 만들면 미술가의 생애와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중섭 (1916~1956)
[1916년 평안남도 평원에서 작곡가 조영하의 장남으로 태어난 이중섭은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관심을 품고 조선고전지대 미술과 서양미술을 연구한 명작을 만들었다. 1935년 일본에서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1948년 귀국후 한국 미술의 선구자로서 활동하였다.]

김정진, 신인아, 정아름(학생 협동 작품) | 자료집(책상자여 사인판, 출력지, 각 30×60cm)

3 활동하기 조사한 자료로 자료집과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자료집 만들기
조사한 자료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자료집 만들기

자료집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 만들기

자료집에 실을 내용을 간추릴게.

수집한 자료를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게.

김하늘(학생 작품) | 이중섭의 가족(하드보드지에 아크릴 물감, 유성 펜, 우드목, 35×45cm)

4 마무리하기 작품을 전시하고 자료집을 발표하여 프로젝트를 평가해 봅시다.

성취 기준 - [초등학교 5~6학년] (2) 표현

[6미02-04] 조형 원리(비례, 율동, 강조, 반복, 통일, 균형, 대비, 대칭, 점중·점이, 조화, 변화, 동세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과서]

강조

연두색 사과들 속에 빨간색 사과는 어떤 느낌이 드니?



형, 색, 크기 등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다.

반복

똑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은 무엇이니?



선, 형, 색 등의 조형 요소가 일정하게 되풀이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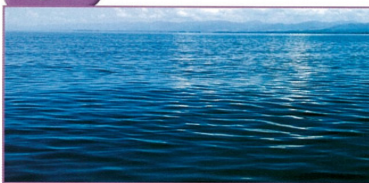
대칭



상하 또는 좌우로 나뉘어 양쪽 모양이나 색 등을 같게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율동

물결의 곡선이 규칙에 따라 반복되어 움직이는 듯해.



형과 색 등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동세
인물, 사물 등 대상의 움직임이 나 자세에서 나타나는 운동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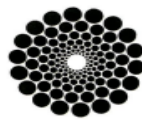
율동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리듬감



반복
선, 형, 색 등이 연속적으로 되풀이되도록 배열하는 것



점중·점이
한 방향을 향해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



대비
성질이 반대되는 특징이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것



조화
서로 다른 요소들 사이의 어울림



대비

모양은 같지만, 색이 달라. 어떤 효과가 있니?



형, 색, 크기 등이 서로 대립되게 배치되어 변화를 주거나 강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



반복되고 있는 조형 요소를 찾아볼까?



형과 색 등의 다양한 조형 요소가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이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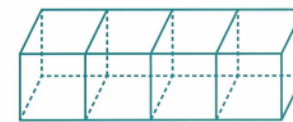
변화하는 여러 가지의 선, 질감, 색, 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형, 색, 크기 등을 다르게 하여 단조롭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조형 원리 탐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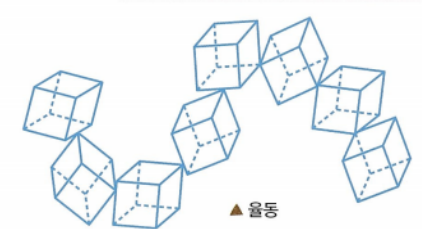
매일 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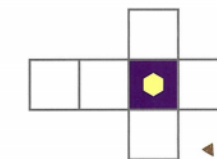
▲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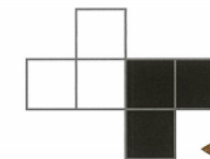
▲ 변화



▲ 율동



◀ 강조



◀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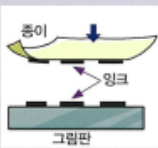
조형 원리란 조형 요소가 화면이나 공간에 구성되는 다양한 질서나 규칙의 원리를 말해요.



표현 평판화로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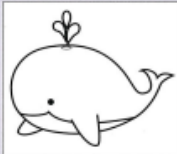
✓ 평평한 판에 그림을 그려 평판화(모노타이프)를 찍어 봅시다.

평판화의 특징



- 평평한 판에 잉크를 묻혀 찍어요.
- 붓 자국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 오른쪽 그림판을 평판화로 찍으면 어떻게 찍힐지 빈칸에 그려 보세요.



모노타이프는 다른 판화와는 달리 한 장만 찍을 수 있어요.



은재우(학생 작품) | 재두루미
(종이에 수채 물감, 세제, 27×39cm)

종이에 평분으로 물을 바른 뒤 찍으면 그림이 선명하게 찍혀요.



이서연(학생 작품) | 갈나무가 있는 풍경
(종이에 수채 물감, 세제, 21×30cm)



박인철(학생 작품) | 꽃병(종이에 수채 물감, 세제, 30×21cm)

평판화(모노타이프) 찍기

- 1 밑그림 그리고 채색하기
- 2 문질러 찍어 내기
- 3 떼어 내기



✓ 밑그림 위에 투명 필름을 올려놓고 물감과 세제를 섞어 색칠해요.



✓ 투명 필름 위에 종이를 덮고 문지르게로 문질러요.



✓ 판에서 종이를 떼어 말려요.



이민영(학생 작품) | 무지개 물고기
(종이에 수채 물감, 세제, 21×30cm)

방법 익히기

• 평판화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표현하였나요?



▶ 생활속 판화

1 떡살(볼록판화)



2 지폐(오목판화)



3 포스터(평판화)



4 스텐실(공판화)





표현 공판화로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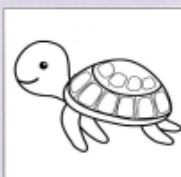
✓ 판에 구멍을 뚫어 공판화(스텐실)를 찍어 봅시다.

공판화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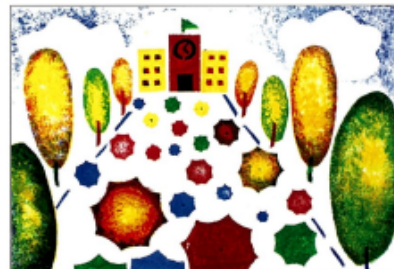
- 판의 구멍으로 잉크가 통과되어 찍혀요.
- 같은 그림을 여러 장 찍을 수 있어요.

? 오른쪽 그림판을 공판화로 찍으면 어떻게 찍힐지 빈칸에 그려 보세요.



김세영, 장한나(학생 협동 작품) | 놀이동산
(종이, 수채 물감, 투명 필름, 38×52cm)

? 이 작품은 몇 개의 판으로 찍었을까요? 스스로 알아보기 66쪽



윤하준(학생 작품) | 비 오는 동쪽길(종이, 수채 물감, 투명 필름, 29×37cm)



스텐실은 옷감, 종이, 나무판 등에도 찍을 수 있어요.

안연수, 우정현, 이소현
(학생 협동 작품) | 반 티셔츠
(티셔츠에 염색 물감, 투명 필름, 30×45cm)



공판화(스텐실) 찍기

✂ 칼이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요.

1 판에 그림 그리기



- ✓ 밑그림에 투명 필름을 올려놓고 찍어 낼 판에 옮겨 그려요.

2 그림판 만들기



- ✓ 투명 필름에 표시한 부분을 오려 내요.

3 찍어 내기



- ✓ 종이 위에 투명 필름을 얹고, 오려 낸 부분에 물감을 묻혀요.

◎ 황희정(학생 작품) | 초대 카드
(종이, 수채 물감, 투명 필름, 출력지, 각 30×42cm)

방법 익히기

• 공판화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표현하였나요?



워홀(Warhol, Andy/미국/1928~1987) 캠벨 수프 병들 상자
(스텐실/40×40×55.9cm/1962년 작)



워홀(Warhol, Andy/미국/1928~1987) 꽃(실크 스크린/58×58cm/1964년 작)

두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해 볼까요?